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설마하니, 하늘에서 갑자기 사람이 출현하는 것일까. 머뭇머뭇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정면으로 시선을 돌린 순간,

쿵!

"뜨아아앗!"

갑자기 어떤 물체가 맹렬한 속도로 눈앞에 낙하하더니, 지면에 격돌했다.

"뭐.....뭐야."

나는 엉덩방이를 찡은 상태로 절규했다. 아니,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기는 했지만....., 정말이다, 정말로 뭔가 떨어졌어!

하지만 다음 순간, 내 머릿속에는 이미 뭔가가 떨어졌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강렬한 의문이 떠올랐다.

"뭐야....., 이거?"

왜냐하면 떨어진 그 사람(?)이 브리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있는 그대로 지금 일어난 일을 말하자면....., 떨어진 그 사람(?)이 브리지를 하고 있다....., 음, 추가 정보가 제로다.

옆드린 것도, 바로 누운 것도 아니고, 애당초 쓰러져 있지도 않다. 정말로 훌륭하다고 할 정도의 브리지가 눈앞에 존재하고 있었다.

.....왜?

너무나도 초현실적인 광경에 나는 잠시 동안 굳어버렸다.

그대로 수십 초 정도 지났을까. 그 브리지 생물의 자세가 갑자기 우르르 무너 졌다.

그걸 계기로 정신을 펴득 차렸다. 브리지의 충격 때문에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져 있었지만, 이 사람은 하늘에서 떨어졌다!

"괘, 괜찮아!?"

황급히 다가가서 그 사람의 몸을 흔들었다.

"응....., 후류?"

그 사람은 마치 잠에서 깬 것 같은 멍한 목소리를 냈다.

"다 , 다행이다....."

일단 생존을 확인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내 눈앞에서, 그 인물이 고개를 들었다.

"어라? 여기는....., 어딘가요?"

두리번두리번 주변을 둘러보는 도중, 나와 눈이 마주쳤다.

"으....."

나는 무심코 숨을 삼켰다. 병적일 정도로 하얀 피부, 풍성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금발에, 촉촉하게 젖은 동그랗고 파란 눈동자. 초콜릿을 본뜬 듯한 색깔의 동화에 나올 것만 같은 의상.

그리고 무엇보다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지나치게 아름다운 이목구비.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그 외모에, 나는 입을 딱 벌릴 수밖에 없었다.

말이 나오지 않는 나를 향해 그 소녀는 얼굴을 활짝 폈다.

"아마쿠사 카나데 씨지요."

"응?"

갑자기 나를 풀 네임으로 불러서 당황했다.

"어.....어어 , 그런데."

당황하면서 기억을 더듬어봤지만, 내 머릿속 어디에도 이런 미소녀의 정보는 존재하지 않았다.

"저기..... , 너는?"

"네, 제 이름은 말이죠..... , 어라? 제 이름은 말이죠..... , 그게....., 뭐였죠?"

"아니....., 난 모르는데."

소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동작을 취한 뒤에 손뼉을 탁 쳤다.

"알겠어요, 전 가벼운 기억 상실증인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기운찬 목소리로 할 만한 말은 아닐 텐데.

"분명 떨어졌을 때 , 머리에 강한충격을 받은 걸 거예요."

아니, 너, 엄청나게 깨끗한 브리지로 착지해서 머리는 떠 있었거든.

"뭐 , 괜찮아요. 조만간 생각날 테니까 아무렇지도 않다람쥐예요."

아무렇지도 않다람쥐라니 , 한물간 개그잖아. 게다가 그 런 외국인 느낌 만발한 비주얼로 말하니, 위화감이 엄청나다.

"아, 정 그렇다면 임시로 다람쥐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사양하겠습니다.

"뭐, 이름에 대해서는 제쳐 두죠. 카나데 씨에게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요!"

"중요한?응?"

바로 옆까지 다가와서 무방비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보는 그 소녀에게서 문득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 뭘까, 강렬하기까지한 이 기시감은.

"왜 그러세요? 카나데 씨."

알겠다, 강아지다.

멋대로 다가와서 조건 없이 호의를 드러내는 이 느낌. 이 소녀와 강아지는 인상이 무척 비슷하다.

나는 그만 반사적으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아차 싶었지만 그녀는 싫어하기는커녕, 기뻐하며 웃었다.

"에헤헤."

"응?"

그녀의 앞머리 일부가 느닷없이 부자연스럽게 우뚝 솟았다. 쓰다듬는 것을 멈추자 원래 모양으로
스르륵 돌아갔다.

"아, 이건 말이죠, 기쁜 일이 있으면 어째서인지 멋대로 서더라고요."

꼬리냐....., 역시 강아지다, 이 녀석은.

갑자기 어떤 욕망이 솟아올라서 아무 생각 없이 ,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내밀어보았다.

"손."

"넋."

.....하잖아.

"아아."

"넋."

하잖아....., 이 녀석, 완전히 강아지네.